

전국의 태고종 종도(스님·전법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국의 태고종 종도(스님·전법사)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도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종단과 확립과 전법교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제가 체면 불고하고 이렇게라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입장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지난 10월에 전국의 태고종스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3종류(62매)를 3,000여 사찰에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스님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스님 한분이 면피하려고 운산스님이 보낸 것이나며 인격을 모독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고 박인공 스님 명의로 한국불교신문에 광고를 하여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한용운 스님께서도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승려의 유형(類型)을 말씀하신바 있지만 총무원장 재임기간 경험을 통한 제 생각으로 우리종단의 승려를 구분하여 보면,

- 가. 총무원의 정책을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스님
- 나. 종단방침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말없이 협조하는 스님
- 다. 본인은 종단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파벌을 형성하여 종단사업을 비협조하는 스님
- 라. 종단의 정책내용도 모르면서 또한 자제하게 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종단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선동하는 스님
- 마. 종단을 위하여 일하는 스님들을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사실무근의 유언비어(거짓말)를 날조하여 유폐하는 스님
- 바. 종단에서 무슨 일을 하던 나와는 관계없다는 듯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스님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종도들에게 서한을 송부하면서도 인공스님과 같이 서한 내용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된 분들은 자기 입장을 변명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저를 이해하는 분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 그러나 저를 비판했던 일부 스님들은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자기수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운산의 진실을 왜곡하여 또 다른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폐시키면서 중상모략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3. 제가 젊은 시절부터 총무원의 총무부장(총무위원) 15년, 사무총장 5년, 법인 행정원장 7년, 중앙총회 부의장 4년, 총무원 부원장 4개월, 총무원장 8년 등 30여년을 종단의 총무행정을 수행하면서 잘 한 것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를 범한 것도 있고 종단에 누를 끼친 것도 있을 것이며 일부 종도들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로 인해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미안한 생각과 함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4.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용봉 화상을 은사로 불교에 귀의(수계득도)한 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수행정진 하였습니다.

가. 승려로서 인간적으로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보람있는 일을 하여야 하며 시종어일하게 본질은 변하지 않고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승려의 정체성을 일탈하지 않고 겸손한 생활과 하심하는 처세를 하면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나. 저는 1960년도에 동국대학교에 중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고 금강산 유점사 경성포교당인 법륜사(대륜 중정여하께서 창건하셨고 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사찰)에 입방하여 (대륜중정여하의 손상좌가 됨)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며 그대 종단지도자이신 덕암스님, 남허스님, 용명스님을 시봉을 하였습니다.

다. 저는 해인사의 주지를 역임하셨고 대 강백이셨던 변철호 큰스님께서 법륜사의 조실로 계셨기 때문에 내전(경장)을 지도받은 바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2년 4학기 중 3학기 수료)까지 공부하였으므로 내외전을 겸수하였으며 전통 대종사찰에서 큰스님을 시봉하면서 경장(경장)을 지도받으며 대학원까지 수료한 것은 부처님과 큰스님의 커다란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저는 1969년도 태고종의 전신인 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직원으로 임명받으면서 종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 저는 1964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용운스님이 창립한 한국불교청년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3사(봉원사, 백련사, 청련사)의 젊은 승려를 중심으로 오국근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한국불교청년회를 재건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 주관하여 조직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불교계를 대표하여 발기회원 단체로 참여 하였고 광화문의 교육회관 대강당을 매월 1회씩 빌려서 불교사상강좌를 개최하는 등 청년시절부터 사회적인 대중포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나. 남허 총무총장스님께서 1974년도에 3사의 젊은 승려들을 추천받고 저를 포함하여 7명 스님(세칭 7인방)을 부장과 총무원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제가 34세에 총무부장(총무부장)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6. 저는 침체된 종단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가. 저는 총무부장으로서 원장스님을 모시고 부장스님들과 함께 종단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정비를 위하여 중헌종법을 개정하고 종단발전의 기반(토대)을 구축하는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 한국불교 종단중 최초로 종단 대표를 중정에서 총무원장으로 중헌을 개정하였고 법계제도를 시행하면서 종덕명칭을 제정하였으며 총무원에서 주관하는 합동수계득도를 시행하여 수계득도자가 공지를 가지고 초발심을 견지하여 수행하도록 전통과 현대를 조화하는 불교의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종도의 교육과 후학양성을 위하여 포교사대학(동방불교대학)을 설립하여 전통강원 교육과 함께 내외전을 겸수하는 최초의 교육육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1954년도에 발단된 종단분규 이후 양 종단이 소송과 물리적인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불교발전을 저해하므로 저는 당시 조계종의 순경산 총무원장 스님에게 남허 총무원장 스님 명의로 서한을 드림으로서 양 종단의 총무

원장 스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여 이후 조계종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7. 저는 총무원장으로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총무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가. 제가 총무원장이 되기 전에 종단은 총무원과 비대위로 양분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총무원장이 된 후 분열되었던 종도들을 결집, 종단을 안정시켜 침체되었던 종단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태고종의 명예를 고양시켰으며 종단 최초로 국고보조를 받아 전승관(총무원사)을 건립하여 종도들로 하여금 전통종단의 공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나. 국제적으로는 한국불교종단 중 유일하게 중국정부와 불교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대표적 불교교향악인 신주화악과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문화인 영산재 시연을 양국 상호교류 공연을 통하여 중국불교협회와 격상된 교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저는 원장으로서 중책을 수립하고 중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념과 소신이 강하고 집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총무집행은 담당국장과 부장이 보고를 하면 저는 원장으로서 결재하고 승인을 하였으며 모든 실무는 부장과 국장 책임하에 집행하였고 총무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총무원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습하였습니다.

라. 전승관을 건립한 후에 모스님이 대검찰청에 운산이 종단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투서하여 대검찰청에서 총무원의 컴퓨터와 장부 등 일체서류를 조사하였고 제 개인의 은행거래 등 재산사항까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마. 당시 검찰이 제 개인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모든 재산관련 서류를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원래 없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횡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용도 이외의 다른 것에 썼다는 전용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 다만 정부지원금 60억원에 해당하는 종단지체부담금 60억원을 모두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상 전액을 조성한 것처럼 보고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종단에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부장이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는 어려움도 겪었으나 제가 자진하여 모든 책임이 원장에게 있다고 검사에게 말하여 담당부장은 빠지고 저만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선고유예 판결)

아. 종단의 모 스님이 악의적으로 대검찰청에 투서만 하지 않았더라면 종단의 명예도 실추되지 않고 저도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종단의 공금 10억원도 손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정부에서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개인의 수입과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보험료를 이천오백칠십원(2,570)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월 고정수입이나 저축된 재산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료 2013년 8월 고지서 사본 첨부)

8. 저는 총무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 우리 종단의 부끄러운 실정이나 총무원에 일시에 30억원~40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30억원과 100억원을 횡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고 사실도 아니며 저를 모략하기 위한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폐하는 스님은 종단에 매년 의무금과 분담금을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 제가 종단 일을 보면서 총무원의 공금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인색하고 인정도 없는 극히 사무적인 사람이라는 말까지도 들었으며 종단사무를 집행할 때 불교종단의 총무원장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타협과 화합으로 원만한 처리하려는 기본정신으로 총무행정을 수행한 관계로 종도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 저는 총남 청양의 선비집안(아버님께서 향교의 전교를 다년간 역임하셨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교교육을 받았고 평생 독신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가족과 동기간의 정을 모르고 싶었으며 재산이 있어도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돈에 대한 싹된 욕심이 없이 축재를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9. 호법원에서 운산을 멸빈시켰다고 하나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가. 인공원장과 은곡 호법원장 등은 운산을 중헌종법에 의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은 징계법과 초심원법과 호법원법에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무원에서 작성한 소위 판결문에 서명 날인만 하였습니다.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행위로 무효이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저는 총무원의 부당한 조치를 불복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멸빈의 징계처분(초심원의 2011년 8월 19일자 판결 및 호법원의 2011년 10월 4일자 판결) 및 2011년 10월 11일 천중사의 주지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승소판결(2012년 4월 18일) 받았기 때문에 이 징계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다. 총무원에서 작성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종단과 봉원사의 명예를 지키고 연지원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위하여 총무원장으로서 중책적으로 집행한 사항이고 개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고 그 당시 중앙총회에서 인공의장이 봉원사에서 책임질 사항이라고 하였고 총회의원들도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더 이상 문제 삼을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합의 하였으므로 원천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라. 저는 평생을 사회적으로 종단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종단사에 범법자로 기록되게 되어 있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취소시킬 것입니다.

10. 종단의 2009년도 까지 결정적인 변화에는 운산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 우리 종단이 1974년도에 남허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7부장 스님들을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종단을 활성화 시키고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해오는 동안 종단의 최고지도자에서부터 중앙3부 기관장과 부장 등 총무원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인사는 저와 인연이 없는 분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 그리고 종단의 제도를 바꾸고 변화할 적에는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총무원과 중앙총회와 사정원의 기관장과 원로스님들이 협조하여 종단이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부인하는 스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지금 생각하면 전승관을 건립한 후 제가 구상했던 종단개혁안이 2년동안 종단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우리 종단이 인공원장 시절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 전승관 건립후에 일부 스님들이 전승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저는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의문사항을 조사 확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는데도 그들이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 당시 모 스님이 대검찰청에 운산을 횡령혐의로 투서하지 않았다면 우리종단은 전승관 건립 후에 전 종도가 단합하여 개혁과 변화를 가져 왔을 것입니다.

마. 제가 총무원장 재임시 집행부에 함께 있었던 스님들 중에서도 종도들로부터 불신받는 스님들도 있었고 저를 비판하는 스님들 중에서도 종도들로부터 불신 받는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종단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 그 당시 저를 비판하는 스님들 중 모모의 중진스님에게 말없이 종단을 협조하는 스님과 건전한 생각을 가진 중진스님들이 앞으로 종단을 이끌어 가도록 인적 개혁을 하고 여러번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종단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모 회의 주축회원들을 총무원의 부원장과 부장 등으로 임명하여 종단을 개혁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습니다.

사. 그러나 이들은 종단개혁의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고 평소 듣던 말과는 차이가 있는 그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또한 대검찰청에 투서한 자에 대한 심증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이 종단을 개혁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당시 저는 종도의 화합과 종단의 장래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그 당시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종단 요직에 있는 몇몇 스님들에게 저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여 달라고 당부하고 8년 임기 2개월을 남겨 놓고 그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와 부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가 동시에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종단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제 개인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뒤로 하면서 종단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였고 미래지향적으로 중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스님들은 운산이 모 회의 세력에 의하여 밀려난 것처럼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30여년간 장기집권한 운산을 사임하도록 한 모 회의 회원스님들이 앞으로 종단을 개혁할 수 있는 스님들이므로 우리는 그 스님들을 믿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 회의 회원들이 저에게 총무원장을 사임하라고 한 사실도 없었고 태고종 스님 누구도 그 당시에 저에게 직접 총무원장을 사임하라고 한 스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11. 저는 사람의 마음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인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가. 저는 평생을 가장 가깝게 지내온 인공 스님을 후임 총무원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총회의원들에게 협조하도록 당부하여 당신이 되었는데 인공스님은 인간적으로 종단적으로 저를 배신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로 제 인격을 모독하고 홍보함으로써 70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국내외적으로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 서신을 스님 여러분께 드리는 것도 제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제가 평생을 태고종과 삶을 함께 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태고종도라는 것을 믿어 주시고 명예회복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 저는 총무원장을 사임하면서 종단의 모든 일은 반하착하였고 심훈의 상록수 춘원의 유정, 무정, 원화대사 등 중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을 읽으면서 인정 많은 19세기를 상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 한국불교신문 11월 6일자 8면 광고를 보고 스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이러한 막말의 광고가 종단의 중보에 게재되었는지 우리종단이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고 개탄하면서 큰스님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비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 저는 그들의 해중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우리종단의 스님 전법사 여러분께 송부하였는데 인공스님과 능해스님은 우리 종단의 치부를 자랑이라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중보에 막말을 공개적으로 광고하여 또다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두분 스님은 총무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도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더니 사임한 후에도 잘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 합니다.

바. 제가 저질스러운 두분 스님이 광고한 것을 그대로 있으면 그 광고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그들과 함께 상식 이하의 짓을 해야 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사. 인공스님과 능해스님은 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아니라고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하는데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궤변이라는 두 글자로 사리에도 맞지 않고 또한 진실을 왜곡하여 막말 광고를 하였으니 종단의 스님들은 타종단이나 사회에서 우리 종단과 스님들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 말씀에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근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보낸 13종류의 서류를 못 받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면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단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찰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년 11월 8일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이운산 합장